

■ 김효신의 스페인 여행기 **스페인, 더 멀리 저 너머로**

61. 몬세라트 (Montserrat) - 다시 한 번, 무엇이 중요한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타일이 깔린 지하역으로 나왔다. 양쪽 벽이 온통 몬세라트 관광 그림으로 덮여 있었다. 따라 가보니 몬세라트 행 티켓을 발급하는 작은 부스가 나왔다. 부스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작은 소음이 일고 있었다. 부스 맨 앞에 한국인 가족이 서 있었고 다음에 미국 사람들. 그 뒤가 우리였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우리가 온라인으로 산 티켓이 무효라는 것이다. 겨울 비수기에는 케이블카 푸니쿨라를 보수하느라 운행을 중지하기 때문에 푸니쿨라 탑승이 포함된 종합 티켓을 안 팔아야 하는데 온라인에서 정상 판매를 했다는 것이다.



걸음한 한국인 가족과 미국 사람들도 도로 와 있었는데 부스에는 아까 그 젊은 직원이 앉아서 서두르는 손님들을 경멸하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부글거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몬세라트-모니스트를 왕복 티켓을 2장 샀다. 이 티켓으로 탈 수 있는 다음 기차는 11시 56분 출발이었다.

티켓을 손에 쥐고 우리는 뛰다시피 걸었다. 커다란 시계판이 11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왼쪽으로 돌아 4번 트랙으로 들어갔다. 기다란 지하 플랫폼을 달려가니 우리 기차가 서 있었고 곧 떠나니 승객들은 빨리 탑승하라고 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우리는 아슬아슬하게 기차에 올라탔다.

부스 앞의 한국 가족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미국 사람들도 이게 웬 일이라는 듯 항의를 계속했다. 우리도 기차 시간이 임박해 부스 직원에게 급하다고 여기서 그냥 다른 옵션 티켓으로 바꿔 줄 수 없냐고 다그치니 스페인 직원은 표정이 매우 안 좋아졌다. 스페인 사람들은 매사에 서두르는 법이 없고 서두르는 사람을 이해도 못한다. 부스 직원은 웬 한국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이 쳐들어 와서 난리를 피우냐는 듯 커다란 눈동자만 이리저리 굴리고 있었다. 결국 지상에 있는 바르셀로나 관광 인포 부스에 가서 환불 받아 오라고 한다.

우리가 올라타자 기차는 곧 출발했다. 평범한 좌석 기차 내부에는 사람들이 가득 타고 있었다. 지정석이 아니라 빈 좌석을 찾아야 했는데 R과 나는 나란히 앉지는 못하고 마주 보며 앉아 가게 되었다. R은 좌석에 앉자 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양미간에 살짝 주름이 잡혔고 얼굴색이 어두웠다. 기차역에 도착한 후로 지상으로 지하로 뛰어 다니느라 애를 써서 지쳐 버린 것이다. 그러나 R이 지쳐 버린 진짜 이유를 나는 알고 있었다. 문제가 생겨 계획이 어그러져 버리자 그때부터 또 강박 증세를 보이는 엄마 때문이다.

우리는 할 수 없이 다시 지상으로 올라갔다. 에스파냐 관광 반대쪽 관광 인포 부스로 길을 건너 갔다. 허탕이었다. 온라인 판매는 온라인으로밖에 환불 받지 못한다고 다시 내려가 티켓 박스에서 그냥 23유로 하는 몬세라트-모니스트를 티켓을 새로 사라고 한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걸까? 다시 길을 건너 엘리베이터를 타고 기차역으로 또 내려 갔다.

R은 나와 성격이 다르다. 상황이 바뀔 경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나처럼 흥분백산은 아니다. 그래서 상황에 휘둘리며 스트레스 잔뜩 받고 서두르며 허둥대는 엄마로 인해 더블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이다. 나는 지쳐 잠든 딸의 얼굴을 물끄러미 보며 또 한 번 반성했다. 이번 스페인 여행의 레슨은 '무엇이 중요한가를 간파하라'는 것이다. 영산이라 불리는 몬세라트를 찾아가는 길에 시간이 늦었다고 밤을 동동 꾸르는 내가 어처구니 없었다. 산은 거기에 있다. 서두르지 말자..... 그리고 딸, 정말 미안하다.

티켓 부스로 다시 왔을 때는 그동안 줄이 더 길어져 있었다. 우리가 계획한 11:36분 기차는 이미 놓쳤다. 우리처럼 헛

Lic. #C-39 920169

지붕에 관한 모든공사

주택/상가/아파트

- 지붕 수리 & 재시공
- 깨진 기와 & 싱글 부분 수리
- 새 지붕 & 비 새는 지붕 공사

무료 견적

쿨루프서비스

Roofing Contractor Since 2007

Cool Roof Service

(213) 820-3789 (714) 224-8394

www.coolroofservice.net

- ★ OC 전지역 전문 부동산에이전트
- ★ 한국에서 미국 부동산 투자 상담환영
- ★ 리스팅, 바잉 & 1031 Exchange 전문
- ★ 주택매매, 렌트, 커머셜, 비즈니스 및 인컴유닛 전문

NEWSTAR Realty & Inv.
뉴스타부동산

애니 윤
Annie K Yoon

C. 657.222.7331

뉴스타 합건
중앙일보 & 조선일보 컬럼
FIT (In 뉴욕주립) 부천여중/고졸
서울 서초구 상공회의소 370이사 역임
전미 부동산 협회 정회원 (NAR)
가주 부동산 협회 정회원 (CAR)
DRE #: 02119369 Realtor®

annieyoon@newstarrealty.com

중고 명품 위탁 판매 Vogue Town 가정의 달 기념

The Largest Brand Name Preowned Cosignment Shop In Town www.voguetaown.net

중고 명품 보증판매!

구경만 해도 손해는 없다

지금 가지고 계신 새것같은 고급 명품들을 팔아서 새주인을 찾아주고 현금으로도 사 드립니다. 가지고 계시는 명품 핸드백, 시계, 보석, 악세서리 등을 가지 오시면 오늘의 시가를 무료로 감정해 드립니다.

안전한 명품거래를 위한 명품지식을 원하시면 지금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파크의

보그타운에 오십시오
중고명품 교환, 매입, 판매, 다양한 품목, 100% 진품 착한 가격 보장!

영업시간 Mon~Sat 10am~5am
Sunday Close

중고 명품가방, 의류 위탁판매도 해드립니다.

(714) 521-1030

8028 Beach Blvd. #B Buena Park, CA 90620 (2floor)

91 La Palma Ave. Knott's Berry Farm

★ Vogue Town 너츠베리팜 건너편